

“반짝이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다래 작가



사랑의열매 

2023
02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3-980-78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소심한 기부? 소중한 진심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
소중한 진심을 전해주세요!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
장도연





04 열매인(人)터뷰
사랑의열매 제11대 김병준 신임 회장

08 희망2023나눔캠페인
나눔으로 만든 따뜻한 겨울

10 표지 이야기
편견에 실력으로 맞선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최연소
초대 작가 이다래

12 나눔 여행
토끼를 만나러 가는 여행

16 매슬랭
김남수 쿠키붕어빵

20 모두의 나눔
문화의 힘으로
모두의 삶을 더 행복하게

26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문화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밴드 음악교육 '툰업음악교실'

30 내 인생의 한마디
광주 82호 아너
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구제길 이사장

34 소중한 진심
포상금 전액 기부하며 이웃사랑 실천한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

36 착한기업
인류 건강과 행복의 길잡이 경동제약(주)

40 나눔 ON
사랑의열매×카카오메이커스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41 나눔 만화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전국 지회 뉴스

68 크라우드펀딩

이달의 표지



○ 이다래, '물밭의 토끼'
acrylic on canvas,
53×41cm, 2022

사랑의열매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2월 / 통권 190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11대 김병준 신임 회장

“사랑의열매를 복지의 중심으로 다시금 우뚝 세울 것”

학계와 정계를 두루 거치고, 이제는 복지현장으로 나섰다.
어려운 시기, 사랑의열매를 이끌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김병준 신임 회장의 따뜻한 포부를 들어본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가장 명예로운 자리

제11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에 김병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취임했다. 지난 1월 19일 사랑의열매 이사회는 김병준 회장을 추대·의결했다. 2월 1일부터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병준 신임 회장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처음 사랑의열매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에 제가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하고 말이지요, 정부와 정당에 몸담으며 복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습니다만, 직접 복지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병준 회장은 너무 영광스러운 제안이었다며 한껏 자신을 낮추었다. 장관과 부총리까지 지냈는데도 말이다. 이어 김병준 회장은 자신이 사랑

의열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욕심이 좀 생겼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건강, 생명, 생계 등 어려움은 물론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사랑의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병준 회장은 어려운 시기, 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굳은 다짐을 내비쳤다.

기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김병준 회장은 무엇보다 사랑의열매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면서 말이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으로 나눔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지금의 사랑의열매는 복지를 통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해가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 김병준 회장은 복지를 통한 사회 투자는 건강성과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그늘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부 참여가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시기라면서, 사회적 소득 격차를 경감시켜나가는 공정한 배분 역할도 강화하며 지원의 폭 역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기부나 나눔이 과거처럼 어려운 사람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어려운 시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복지를 통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해가겠습니다.”



“아요, 사실은 굉장히 생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눔은 신뢰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원을 축적해주는 재화거든요.”
 과거 수출 지향에서 내수 지향으로 경제가 전환된 만큼 개인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신뢰라는 사회적 자원을 축적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말이다.

나를 위한 기부 시대

“나눔은 곧 생산이고, 그 생산을 지속해주며, 공동체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키워줍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파이가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보다 더 생산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부하면 나의 생활에 선순환되어 돌아오는 것으로 나눔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라고 봅니다.”
 김병준 회장은 ‘나를 위한 기부 시대’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투자 개념의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정신도 강조했다.
 “사랑의열매는 그동안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나누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공동선(共同善)과 공공성(公共性)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이죠. 기부받은 성금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혁명 내지는 시대 흐름에 맞게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는 거죠.”
 김병준 회장은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해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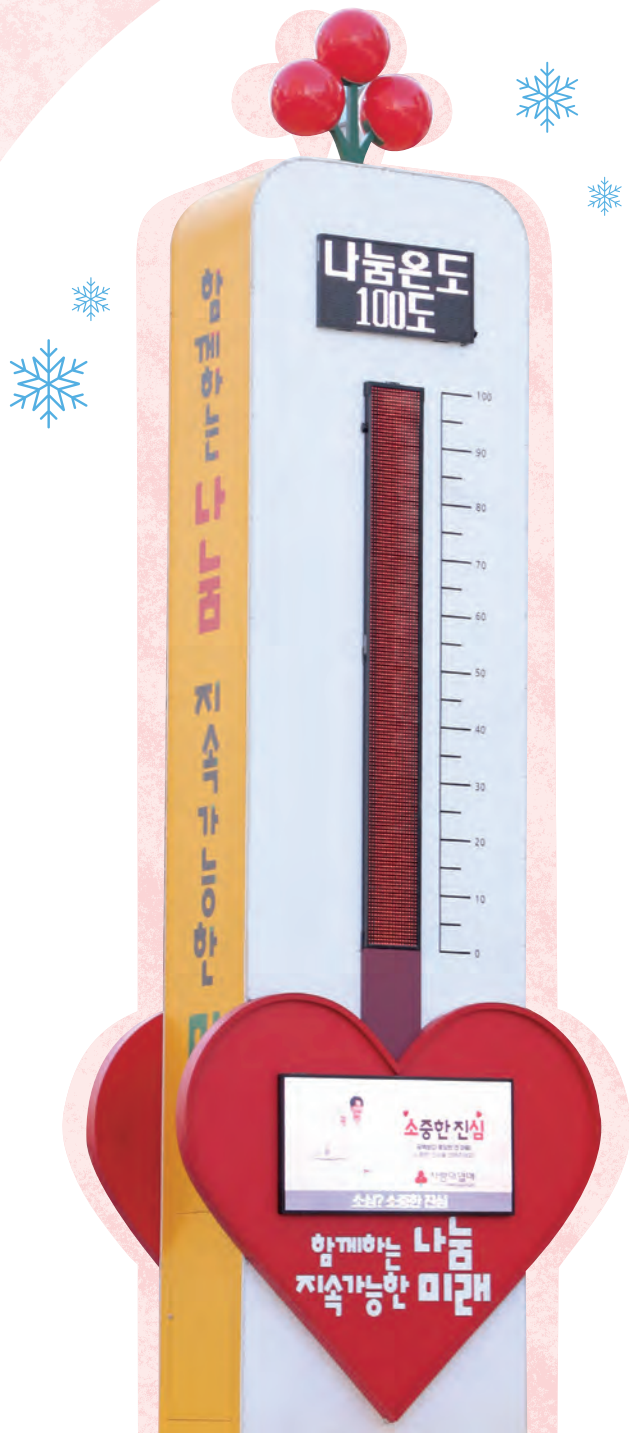
김병준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랑의열매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의 성장에는 건전한 분배 담론과 함께 사회 안전망 대책이 필수라면서 말이다.

“정부의 지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발굴하고 지원해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랑의열매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이를 위해 정부 영역과 민간 영역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므로 파트너십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병준 회장은 40여 년간 교수·공직자·시민운동가 등으로 쌓은 경력을 십분 활용해 국가와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랑의열매 직원들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우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사랑의열매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의열매 발전은 대한민국 복지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저는 중앙회는 물론 17개 시도 지회 전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김병준 회장은 정말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신임 회장 취임 인터뷰가 아니라 취임 1주년 인터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2023년 새해, 제11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병준 회장의 3년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2년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등 학자로서, 교육·행정·정치 분야 관료로서 굵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2004년 대통령 정책실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나눔으로 만든 따뜻한 겨울

온몸이 얼어붙게 만드는 매서운 한파 앞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사랑의온도탑 수은주가 쑥쑥 올라간 것. 다시 한번 나눔의 기적을 재현한 이번 캠페인의 의미 있는 순간을 지면에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46일 만에 100도 달성

지난 1월 31일 사랑의 온도탑이 110도를 기록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마무리 되었다. 총 모금액은 4,444억 원으로 62일 간의 캠페인이 막을 내렸다. 사랑의 온도탑은 1월 15일 캠페인을 시작한지 46일 만에 목표액 4,040억 원을 모금하며 100도를 달성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그룹이 각각 30억 원씩 기부금을 증액하는 등 금융계의 기부가 두드러졌다. 또한 임영웅과 영탁의 팬클럽 기부 등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를 위한 팬들의 기부인 팬덤 기부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큰 힘이 되었다.

110°C



모금함에 차곡차곡 쌓인 사랑. 이번 캠페인에는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모금함을 가득 채웠다. 사랑의 온도탑 옆에 배치한 모금함에 직접 기부금을 넣는 시민도 많았다. 한때 모금함에 많은 기부금이 쌓여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급하게 모금함을 비우러 갔다는 후문. 또한 기부금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발견돼 캠페인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만들었다.

놀이와 기부를 하나로, 재밋는 기부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광화문광장에 셀프 포토 부스 '열매네컷'을 운영했다. 약 40일간 1,000회 촬영해 수익금 500만여 원이 전액 기부됐다. 사랑의열매는 MZ세대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즉석 사진관(포토 부스)에 착안해 기부와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열매네컷을 선보인 것. 5,000원으로 추억을 남기는 것은 물론, 수익금이 전액 기부돼 광화문광장을 찾은 이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랑의열매는 열매네컷으로 기부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사랑의 온도탑 옆에 설치한 굿즈 소품,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는 동전을 던져 모금함에 넣을 수 있는 플래시 게임 등을 제공해 다방면으로 희망나눔캠페인을 즐기며 기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편견에 실력으로 맞선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최연소 초대 작가 이다래

“반짝이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이다래 작가.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토끼 그림으로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다.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오로지 작품으로 승부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해가 밝았다. 토끼는 예로부터 풍요는 물론, 달에서 불로장생의 약 방아를 찧는 토끼는 근심 없는 이상 세계를 상징하기도 했다. <사랑의열매> 2월호도 그런 멋진 토끼로 활짝 문을 열었다. 표지의 작품은 서양화가 이다래 작가의 '풀밭의 토끼'(acrylic on canvas_53x41cm_2022)다. 친근한 표정에 통통한 몸의 토끼가 아주 귀엽다. 이다래 작가는 산과 들, 꽃과 나무,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주로 그린다. 특히 사물을 해석하는 시선과 매력적인 색 표현이 남다르다. 이다래 작가의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친근하고 어딘가 위로가 된다. 작품뿐 아니라 이다래 작가 또한 그렇다. 자폐성 발달장애 화가인 그는 장애인이라는 편견에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우리 이웃들에게 작품만큼이나 희망의 아이콘이다. 장애인 미술

공모전은 물론, 초등학교 시절부터 비장애인들과 함께 겨루는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지난해에도 한국종합예술대회 미술공모전 대상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대학 역시 장애인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을 정도다.

이웃에게 희망 전해

어려서부터 이다래 작가는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 문성자 씨는 그저 듣기 좋으라고 건네는 말이라 생각해 믿지 않았다고 한다. “세 살 때부터 자폐 증세를 보여 언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수업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육청 주관 미술 대회에서 전교 학생 중 다래 혼자 최우수상인가, 우수상인가를 받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래의 재능을 인정했죠.(웃음)” 현재 이다래 작가는 (주)디스에이블드(대표 김현일)와 (주)컴즈(대표 김지형) 소속 작가이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최연소 초대 작가다. 일생에 한번 하기 어렵다는 초대 작가를 20대에 달성했다. 개인전을 비롯해 초대전과 단체전 그리고 한국종합예술대회 대상, 령트명 미술공모전 대상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그야말로 잘나가는 작가다. 이다래 작가의 왕성한 활동은 같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이웃에게도 희망을 전해준다. 2023년 토끼해, 자신만의 반짝이는 이상 세계로 초대장을 보내온 이다래 작가의 작품으로 희망차게 시작해보자. 🍀

작가 주요 profile

- 2014 제24회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대상
- 2017 백석예술대학교 회화과 졸업
- 2019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초대 작가
- 2021 제23회 한국종합예술대회 대상
- 2022 제1회 령트명 미술공모전 대상
- 202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작가



토끼를 만나러
가는 여행

지혜롭게
깡충깡충

영민하게
깡충깡충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토끼를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로 여겼으며,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꼽았다. 또한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부터 달에 사는 옥토끼,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른 산토끼까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친숙한 동물이기도 하다. 2023년,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전국 팔도에 있는 '토끼'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다.

글 이선희 사진 목포시청, 태안군청, 사천시청, 창녕군청, 산토끼노래동산 참고 자료 국토지리원, 태안 별주부마을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목포오키토끼 포토 존

목포시가 지난 연말, 새해를 앞두고 대반동 유달유원지 진입 계단에 흑토끼 포토 존을 조성했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역 화가들과 함께 계단 벽화를 완성한 것. 긍정의 의미인 오케이(OK)를 담아 목포오키토끼로 이름 지은 포토 존은 약 130m² 규모의 Y자 모양 계단에 조성했으며, 중앙동산에는 지름 2m의 달 조형물과 흰토끼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그중에서도 영산강 일출, 서해 노을, 목포대교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토끼 옆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교로 59 유달유원지
- ☎ 유달유원지 공원관리사무소 061-270-8374



용왕제를 지내는 <별주부전>의 주 무대 태안 별주부마을

태안군 남면의 별주부마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별주부전>의 배경이 된 곳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 <별주부전>에 나오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사일생으로 육지에 돌아온 토끼가 “간을 빼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냐”고 놀려댄 후 사라졌다는 ‘노루미재’, 토끼에게 속은 자라가 죽어 바위가 됐다는 ‘자라바위’, 토끼 간을 맑은 샘에 씻어 감추어놓고 왔다고 한 ‘묘샘’ 등이 있다. 또한 매년 음력 정월이 되면 용왕에게 다시는 질환이 찾아오지 않도록 용왕제를 지낸다. 대자연의 고마움을 기리고 바다의 진잔함과 인간의 풍요로움을 용왕께 기도드린 데서 유래한 것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즐기는 마을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다.

- 충남 태안군 남면 별주부길 102
- 태안 별주부마을 041-672-3359



<별주부전> 전설이 내려오는 곳 비토섬

사천시 서포면의 작은 섬 비토섬. 리아스식해안과 푸른 바다, 청정 갯벌로 사천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도 <별주부전>의 전설이 남아 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별주부전>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다. 거북 등을 타고 오던 토끼는 달빛에 반사된 육지를 보고 성급히 뛰어내리다 바다에 빠져 죽고, 그 자리에 토끼 모양의 섬(현재의 토끼섬)이 생겨났고,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별주부는 그 자리에서 거북섬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용궁에 간 남편 토끼를 기다리던 부인 토끼는 바위 돌에서 떨어져 섬(목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월등도를 돌당섬이라 부르는데, 토끼가 용궁에 잡혀간 후 돌아와 처음 당도한 곳이라는 뜻으로 ‘돌아오다’와 ‘당도하다’의 첫글자를 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 사천시청 055-831-2114



국민동요 ‘산토끼’ 발상지 산토끼노래동산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로 시작하는 동요 ‘산토끼’는 온 국민의 애창 동요이자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노래다. 이 동요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 창녕군 이방면 안리 이방초등학교(당시 이방보통학교)에 재직 중이던故 이일래 선생이 직접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들었다. 창녕군은 2013년 동요 ‘산토끼’ 발상지임을 알리고 이일래 선생을 기념하고자 이방초등학교 뒷산에 산토끼노래동산을 만들었다. 산토끼 동요 탄생 배경과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산토끼동요관은 물론 토끼 먹이 체험장, 테마별로 구성한 동화마을과 토끼마을, 놀이 시설 등이 있다.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린이에게는 생생한 체험 학습장이 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

- 09:00~18:00(월요일 휴관) ₩ 어린이 1,000원, 어른 2,000원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623 ☎ 055-533-1400



지금까지의 붕어빵은 잊어라

김남수 쿠키붕어빵

맛의 고장 전라도의 위엄일까. 붕어빵마저
맛집으로 소문나 줄 서서 먹는 곳이 있다.
인터넷엔 후기가 즐비하다. 대체 어떤
붕어빵이기에? 글강은진 사진서범세



들어는 봤나요? 쿠키붕어빵

‘김남수 쿠키붕어빵’을 방문하기 위해 전북 익산으로 가면서 든 생각은 딱 하나였다. 붕어빵이 맛있어봤자 붕어빵이지, 특별할 게 뭐가 있을까? 길바속축(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의 진리, 갓 구운 붕어빵이야 언제 어디서 먹든 다 맛있으니까 말이다. 먼 거리를 달려 가게에 도착하니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남수 사장이 열심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손놀림이 아주 바쁘다. 단체 주문이 들어와 보내고 나니 남아 있는 붕어빵이 얼마 없다며, 일단 계란빵 먼저 맛보고 있으라며 인사를 건네기가 무섭게 손에 쥐여주셨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빵을 한 입 먹자마자 눈이 커졌다. 단짠단짠 조화가 그야말로 완벽했다.

“서울에서 먹어본 계란빵하고 완전 다르지요? 처음 드셔보시면 다들 놀라세요.(웃음) 좋은 계란을 쓰기도 하지만, 적당한 간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크림치즈붕어빵도 드셔보세요. 더 깜짝 놀랄 거예요!”

김남수 사장이 익숙한 듯, 그러나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이번에는 붕어빵을 건넸다. 여성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크림치즈붕어빵이란다. 단팥이나 슈크림은 익숙했지만, 크림치즈붕어빵은 처음이었다. 막 구워낸 크림치즈붕어빵을 먹어보니 지금껏 먹어온 붕어빵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다. 모양만 붕어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혀 다른 맛이였다. 그제야 상호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쿠키붕어빵!



익산의 명물 쿠키붕어빵을 개발한 김남수 사장

1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붕어빵을 굽고, 나눔도
실천해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김남수 사장



시크릿 빵 반죽이 비법

쿠키붕어빵은 이름처럼 쿠키 같았다. 바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고소한 맛이 영락없는 쿠키였다. 또 바삭한 쿠키 같은 겉면과 달리 촉촉한 안쪽은 카스텔라 같았다. 거기에 크림치즈 소가 정말 잘 어울리었다. 맛있는 브런치의 간이 버전 같다고 할까. 왜 여성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맛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다른 맛이 궁금했다. 단짠단짠 계란빵도 하나 더 먹고 싶었고, 잘 구운 와플도 눈에 들어왔다.

“제가 원래부터 남 따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노점에서 붕어빵 하나를 팔아도 내가 만든 나만의 맛을 만들고 싶었죠. 비법이라면 반죽에 있어요. 어디서 사다 쓰는 반죽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배합한 빵 반죽으로 만든 거거든요.”

김남수 사장은 쿠키붕어빵을 개발하는 데 꽤 고생했다고 말했다. 여러 재료를 배합하며 자신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번 구워보고 아니다 싶으면 반죽을 가차 없이 버렸다.

“한 달 넘게 빵 반죽 개발에 매달리다 드디어 원하는 맛을 찾았어요. 그때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건 신이 내게 내리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요.(웃음)”

그때부터였다. 김남수 쿠키붕어빵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게 말이다. 붕어빵은 입소문을 타고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쿠키붕어빵을 만드는 반죽에는 무려 다섯 가지가 넘는 재료가 배합돼 있다. 슬쩍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한두 가지라도 알고 싶었지만, 김남수 사장은 ‘정성’만 공개할 수 있다며 웃는다.

붕어빵만큼 유명한 사장

김남수 쿠키붕어빵은 원광대학교병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다. 1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원광대 재학생에게 존중한 간식이자 졸업생에게 추억의 맛,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디저트로 그렇게 익산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가게엔 명물이 또 있다. 바로 김남수 사장이다. 기부 천사로 유명한 바로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다. 붕어빵을 팔아 매일 1만 원씩, 1년 동안 365만 원을 모아 11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강원도 산불 화재와 메르스 사태 및 코로나19 확산 등 나라에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성금을 전달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에 붕어빵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선행을 펼치고 있다. 김남수 사장이 이렇게 이웃을 돕는 이유는 뭘까?

“어떤 사람은 붕어빵이나 파는 사람이 무슨 기부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붕어빵 파는 사람도 기부하니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해보세요’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정말이지 기부를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 기쁨은 비할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요!”

김남수 사장은 붕어빵을 파는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했다.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다만, 자신도 이리저리한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어려운 이웃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당당한 모습이 멋있었다. 붕어빵이 붕어빵이지 하는 생각은 금물, 김남수 사장의 쿠키붕어빵을 먹어보시라. 지금까지 이런 붕어빵은 없었다! 🍷



1 단짠단짠 입맛을 자극하는 계란빵
2 바삭함이 남다른 와플

김남수 쿠키붕어빵 대표 메뉴 list



쿠키붕어빵 줄서서 먹는 익산의 명물 붕어빵으로 종류는 단팥, 슈크림, 초코, 크림치즈로 총 네 가지다. 자체 개발한 빵 반죽으로 구워 식어도 눅눅해지지 않고, 냉동 보관 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막 구운 것처럼 바삭하다. 그래서 택배 주문도 많다. ₩ 단팥·슈크림 3개 2,000원, 초코 1개 700원, 크림치즈 1개 1,000원



계란빵 단짠단짠의 정석이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빵 안에는 계란의 간이 기막하다. 적절한 소금 맛이 빵의 달콤함을 배가한다. ₩ 1개 1,500원



와플 과자처럼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바삭하게 구워내는 와플 맛이 일품이다. 사과잼을 기본으로 딸기, 초코에 생크림을 발라 취향껏 즐길 수 있다. 잼 대신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올리는 아이스와플도 인기다. ₩ 아메리칸와플 1개 1,500원, 아이스와플 1개 4,000원

문화의 힘으로 모두의 삶을 더 행복하게

문화에는 삶을 치유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또한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사랑의열매는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손그림



인공와우 수술 아동 연극 치유 프로젝트 아주 특별한 이야기 여행

연극 치유 프로젝트 참여
아동의 보호자

“우리 아이들도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연극 치유 프로그램에 함께한 참여 아동들 2 연극 치료 외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도록 했다.

▶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으면 청각 기능을 갖게 되지만, 소리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
해 여러 문제를 겪는다. 특히 아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극단 진동은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아동들을 위한 연극 치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연극 치료 기법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해 참여자가 활동에 거부감
을 갖지 않도록 했다. 자유롭게 참여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자존감을 향상하고, 관계
맺기 훈련을 통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자 했다.



MINI INTERVIEW



극단 진동 최소진 대표

“청인과 같은 언어를 쓰지만, 듣는 방식이 다른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자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의
미가 깊습니다. 아동이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연습과 훈련을 거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뿌듯했습니다. 소통 방식이 달라도 상대
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테마파크 체험 활동



1 테마파크 현장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 아이들 2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현장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산하 아동 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시설의 울타리에서만 자라 보호 종료 후 새로운 환경과 사회를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청소년보다 더 극단적 정서 변화를 보인다. 이에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는 삼성전자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불안한 심리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테마파크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총 319명의 아동·청소년과 양육자가 함께 테마파크를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MINI INTERVIEW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신지나 팀장

“테마파크 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가져옵니다.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해당 사업의 경험은 소중한 추억인 동시에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듯, 성인이 된 아이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문화 형성과 선진 문화 시민 의식을 함양할 좋은 기회이자 성과입니다.”

앙코르 인생학교 (60플러스가 직접 말하는 우리 삶과 사회적 역할)

만 49세가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된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퇴직 희망 연령은 73세로,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 더 이상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준비와 개발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2년 60플러스들이 직접 유엔시니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앙코르 인생학교를 진행 중이다. 시니어들의 능력과 경험이 사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구성해 그 속에서 연대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현재는 새로운 진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니어를 위한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와 황혼 육아 중인 시니어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다. 향후 취미, 일자리, 자원봉사, 인권 등 개인의 욕구 충족과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확산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운영뿐 아니라 시니어성평등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발·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유엔시니어 사회적협동조합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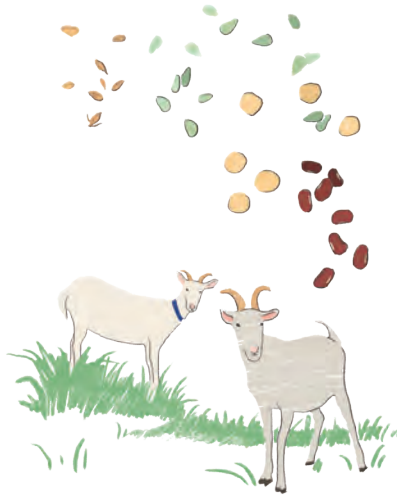
유엔시니어 사회적협동조합 신옥균 대표

Q 사랑의열매 지원은 해당 사업에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시니어를 돕는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수용해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의열매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요. 저희가 제시한 사회문제에 공감을 해주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정말 기뻐합니다.

우간다 하루곤고 지역 여성 문해 교육 및 자립 지원



1 조합원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수확 후 종자를 돌려받는 종자은행 2 문해교실에서 공부 중인 우간다 여성 3 하루곤고 지역 조합 임원 교육 모습



우간다 하루곤고 지역의 성인 약 60%가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남성은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고, 여성은 비싼 학비와 농사일 및 의도치 않은 임신 등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 이로 인한 문맹률은 남성 40%, 여성 60%로 특히 여성의 문해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가정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심각하다는 것도 문제였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만, 지역 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타 지역 도매상이 농민에게 일괄 수급하는 유통구조라 농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 교육 이 사업은 문해 교육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문해율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교육적 성과와 함께 경제활동이 증가할 경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여성의 의사 결정권이 강화되고, 농촌 지역 내 구조적 성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자립 지원 문해교실 참여자들은 지역협동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조합 활동으로 생산물을 판매해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구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농촌에선 종자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종자를 빌릴 때 고리대금 위험에 빠지기 쉬운데, 조합원이 되면 종자은행을 통해 종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문해교실에 참여하면 염소은행, 종자은행 및 조합 활동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문해 교육에 대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이 문해교실에 참여할 경우 그의 가족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해 종자은행과 염소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김지희 간사

- Q **지난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 해 동안 총 643명의 교육생이 문해 교육을 들었고, 교육생이 속한 모든 가구에 총 3,560kg의 종자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하루곤고 각 마을에 문해교실이 잘 정착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하루곤고 지역 사업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나요?**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합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며, 사업의 청사진을 보여주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Q **문해교실과 자립 지원을 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간다에서는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기에 남편은 아내를 문해교실에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문해교실을 수강하는 여성이 가족 구성원과 함께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종자은행과 염소은행을 통해 가계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Q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간다 정부 차원의 비정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나눔과꿈 지원을 통해 정부에서 진행하지 못한 문해 교육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해 교육이 조합 활동을 통해 지속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아름다운 하모니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인간에게 음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음악은 세상에 못 안 되는 진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진짜 음악을 만난 문화 사각지대 아이들, 그 변화가 궁금하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음악의 놀라운 힘

“공연을 준비하면서 애들하고 의견이 부딪치기도 했고 좀 힘들었거든요.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살짝 떨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끝내고 나니 잘했다며 축하도 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경기도 양주 나사로청소년의집에서 만난 김지우(가명, 18세) 양은 얼마 전 끝난 공연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보였다. 평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보컬 수업을 신청했는데, 친구들에게 노래 좀 한다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정식으로 배워보니 많은 것이 달랐다고 한다. 무엇보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전엔 관심 없던 대학 진학도 고민 중이다.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말이다. 지우 양에게 보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무대에 올라 노래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대학이라는 새로운 꿈까지 꾸는 계기를 만들어준 곳은 어디일까? 바로 문화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밴드 음악교육 지원 사업 ‘툭업음악교실’이다. CJ 그룹이 2012년에 시작해 2017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와 사랑의열매가 지정 기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진행 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이 주 대상자다.

문화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밴드 음악교육 '툭업음악교실'





1

1 나사로청소년의집 튜업음악교실 보컬 수업
2 프로 뮤지션이 강사로 활동한다. 사진은 드럼수업.
3 소규모로 집중 지도하는 음악교실. 사진은 건반 수업 모습

프로 뮤지션 수업, 음대 진학까지

현재 튜업음악교실은 아동·청소년 6호 처분 민간 위탁 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다문화 청소년 교육기관,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총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 1회 2시간 기준 24~40회가량 정기 교육으로 진행한다. 커리큘럼은 최대 6개 악기 파트(보컬 남/여,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건반, 드럼)를 세팅해 밴드를 구성하며, 전문 뮤지션이 직접 찾아가서 수업하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 코드를 익히고 리듬을 배운다. 가요, 힙합, 발라드, 재즈 등 아이들이 선호하는 모든 장르가 선택 대상이다. 특히 튜업음악교실은 그 전문성이 남다르다. 강사진부터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뮤지션이다. 수업 역시 뮤지션 1명당 1~3명의 학생을 맡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단순히 음악을 체험해보는 차원을 넘어 음악 녹음, 뮤직비디오 제작, 교실 음악회, 공연 등을 목표로 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다 보니 튜업음악교실을 수료한 아이들 중에는 음대에 진학하거나 전문 뮤지션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음악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또래의 타 집단에 비해 다양한 경험과 자기 개발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튜업음악교실은 이런 청소년의 문화 격차를 줄여주고,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밴드 구성원으로 배려, 소통, 화합하는 환경 안에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배운다. 또 음악교실 활동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하고 다면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밴드 활동으로 협동심과 사회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을 통해 사회 참여를 추구하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튜업음악교실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음악,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을까.

“음악을 통해 다시 사회를 배워나가는 아이들”

나사로청소년의집 튜업음악교실 김강완 강사



음악교실 전후 아이들의 변화가 궁금하다.

음악교실을 처음 시작할 때 사전 미팅에서 원장님이 수업 중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버리거나 욕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긴장을 좀 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본 아이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이곳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수업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더라. 자기들끼리 신청하라고 추천도 하면서 말이다.

음악교실을 통해 교류와 배움의 즐거움을 새삼 알아가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음악이 어떤 힘을 발휘할까?

튜업음악교실은 보컬, 베이스기타, 건반 등 6개 세션으로 세팅한다. 독주자 아닌 앙상블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재능이 있든 없든, 연습을 했든 안 했든 자기주장만 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양보와 타협, 이해 등 어우러지는 법을 배운다. 분쟁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데, 음악을 통해 해결하면서 간접적으로 소프트하게 사회를 다시 배워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곳 나사로청소년의집 선생님들은 물론, 한국메세나협회나 사랑의열매에서 지원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려움은 없다. 다만 특수한 상황의 아이들이지 않나. 내가 아무리 이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처럼 평범하고 순수하다고 말해봐야, 하루아침에 편견 어린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관련 뉴스가 뜨면 잘 안 본다. 무슨 말을 할지 아니까.

6년 동안 수업을 진행해왔다고 들었다.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걸 인정해주십사 하는 거다. 부모가, 정이, 학교가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사회에서라도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건강하고 긍정적 세상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

“이웃의 부름에 응답한 봉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결핍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결핍을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열심히 살게 만드는 '성장 동력'으로 승화하는 사람도 있다. 구제길 아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글강보라 사진 이승재

구제길 아너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지금은 광주에서 대규모로 손꼽히는 세종요양병원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세종의료재단의 이사장이지만,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곱 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읜 탓에 가난과 상처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구제길 아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성공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가 말하는 성공은 경제적 여유를 넘어 나눔과 봉사 관점에서의 성공을 의미한다. “불우한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웃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나눔과 봉사에 대한 남다른 고민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어르신을 생각하는 현대판 타인능해(他人能解)

전남 구례군에는 조선 영조 때 무관이던 류이주 선생의 고택인 운조루(雲鳥樓)가 자리하고 있다. 운조루의 헛간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자가 새겨진 쌀 뿔뚜지가 있다. 타인능해는 누구나 뿔뚜지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형편

이 어려운 누구라도 퍼갈 수 있게 구멍이 뚫린 뿔뚜지를 놓아두었다.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이 독에 쌀을 채워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 쌀을 가져가도록 배려한 것이다. 운조루만의 나눔 정신 덕분에 흉년에도 마을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구제길 이사장은 운조루의 특별한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판 타인능해를 실천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산수동 푸른길공원 내 정자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간식함'을 설치한 것이다. 사랑의 간식함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3시에 빵과 우유 50명분이 채워진다. 이곳을 오가는 지역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소소한 나눔 같지만, 매일 이어지는 지원으로 한 달이면 25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겨울 간식으로 3개월만 운영하려던 일인데, 어르신들과의 정을 차마 끊을 수 없었죠.(웃음) 바둑과 장기로 일과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황혼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현장의 호응이 좋아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한 마음입니다.”

광주 82호 아너,
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구제길 이사장





이웃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출동

구제길 이사장의 나눔과 봉사는 사용자 입장에 100% 맞춰 있다. 사용자 편의에 맞춰 진행한 덕분에 시대를 앞서간 봉사도 여럿이다. ‘부름의 전화’는 대표적 활동 중 하나다.

“지금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잖아요. 35년 전에는 장애인 외출 환경이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차를 가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부름의 전화’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동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이나 사지마비 장애인이 부름의 전화에 연락하면 출동이 가능한 봉사자에게 무선호출기인 ‘삐삐’로 호출해 원하는 곳까지 이동을 돕는 차량 봉사 활동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전신인 셈

1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봉사 활동에 나선 구제길 아너의 모습

이다. 당시에 광주시 전역을 커버했고, 서울의 봉사자들과 연계해 서울까지 이동을 도왔다. “저희가 광주역까지 실어드리고, 서울 봉사자분들에게 미리 전화를 하죠. 몇 시에 도착하는 차니까 서울 어디로 모셔다드리라고요. 그렇게 서울까지 이동을 도와드렸죠.”

조선족 동포를 위한 ‘송아지 지원 사업’도 나눔 혁신으로 꼽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송아지 한 마리를 지원합니다. 그 소를 잘 길러서 새끼 한 마리를 이웃집에 분양하면 그 소가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되는 방식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일석이조 방법 아닌가요?(웃음)”

구제길 아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출동하는 봉사 대기조의 삶을 살아왔다.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봉사까지 하는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이웃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서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키운 아이들

구제길 아너는 아내인 장하영(광주 101호) 아너와 부부 아너이기도 하다. 이 가정에서 나눔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아



들 역시 부모의 가르침대로 일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세 아들 모두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는데, “환자의 마음까지 다독이고 살피는 치료를 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진료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물이나 주사만으로는 온전히 치료할 수 없으니 따뜻한 손길과 친절함 설명, 그리고 세심히 배려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구제길 아너가 품은 것은 아들 셋만이 아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에도 적극 나서 ‘광주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사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고맙다, 아들”, “반갑다, 딸”이라고 답장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한창 사업을 할 때는 22명의 학생을 동시에 지원하느라 한 달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버거울 때도 있었죠. 사업 자금과 장학금 지원을 저울질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다 문득 고민을 했다는 자체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학금 지원부터 빼놓고 생각했죠.”

대책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눔에 매진할수록 사업은 번창 가도를 달렸다. “퍼낼수록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눔도 그렇더군요. 나눔으로 빈 금액은 어김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손해 막아주는 나눔 샘물에 기쁨이라는 이자까지 더해지니 활동을 멈출 이유가 없었죠?”

구제길 아너가 생각하는 봉사와 성공의 의미

구제길 아너는 봉사와 나눔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나온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



2 구제길 이사장은 광주 82호 아너로 가입하며 나누는 삶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때문에 수백 명의 봉사자를 탄생시켰고, 광주 아너 회장 당시에는 40명 이상의 아너 회원을 가입시키며 변화의 물꼬를 텄다.

“봉사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환경 캠페인을 하면서 단순히 강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그친다면 미완의 봉사 활동이 되죠. 쓰레기를 주우며 자신이 버린 생활 오수가 오염의 원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변화할 때 진정한 봉사 활동이 완성됩니다.”

기업인을 통해 성공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새롭게 내리기도 했다.

“기업의 성공은 회계 장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이윤을 냈다면, 그 일부를 사회와 어려운 구성원을 위해 환원하는 활동까지 더해져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길 아너는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난 주변의 도움을 떠올린다. “위기의 순간에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고, 그 손을 맞잡고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사람의 손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자신을 위해, 또 하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웃의 손을 꼭 잡은 구제길 아너처럼 말이다. ♣

기부는 기쁨에 따뜻함을 더하는 마음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들이 이웃을 지키고자 나섰다. 2022 해양경찰청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해 받은 포상금 전액을 기부한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 사람들이다. 글 강은진 일러스트 조성을 사진 창원해양경찰서

전국 1위의 기쁨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에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하는 해양경찰이 있다. 주인공은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류용환) 수사과 형사2계(형사기동정 P-122)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도 상반기 우수 형사2계 평가'에서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중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우수 형사2계는 각 분야 치안 실적, 수사 전문화, 가점 등을 종합한 득점 순위로 선정하며, 창원해양경찰서 형사2계는 송치 건수 52건 등 모두 만점을 받았다.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했죠. 포상금도 받고요. 서장님께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웃음) ... 그리고 우리 형사2계 직원들 사이에서 기부를 하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지요.”

김용규 형사2계장은 전국 1위는 그동안 고생한 결과 이만큼 포상금을 보다 뜻깊게 사용해 마무리도의 미 있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부가 결정되니 팀의 가장 막내 직원이 “기부는 사랑의 열매에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며 웃었다.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해

포상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를 찾은 날은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 9명 직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포상금이 50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환대해주시니 속سر러우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돌아오는 길에 기회가 되면 앞으로 좀 더 하자고 얘기했어요.”

김용규 형사2계장은 상을 탔을 때도 기뻐했지만, 기부를 하니 정말 뿌듯하고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포상금 전액 기부하며
이웃사랑 실천한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



(뒷줄 왼쪽부터) 고룡 순경, 구경주 순경, 서장 류용환 총경, 형사2계장 김용규 경위, 수사과장 김성욱 경정, 이봉준 경위 (앞줄 오른쪽부터) 박창홍 경사, 김영민 경사, 강성관 경위, 임수지 순경, 박성건 순경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언제든 누구든 기회가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부에 동참해보라고 기꺼이 권했다. 해양경찰로서 마지막까지 이웃들의 안전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요즘 낚시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를 하는 분이 크게 늘었어요. 바다는 특수한 곳임을 잊지 마시고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세요.”

한편, 창원해양경찰서는 이번 포상금 기부 외에도 자체 진행한 플리마켓 행사 수익금을 희망 2021나눔캠페인에 성금으로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총 400여만 원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인류 건강과 행복의
길잡이 경동제약(주)

나눔과 봉사가 이어지는 그날엔, 이웃의 평생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은 경동제약의 광고 슬로건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동제약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비전으로
창립 이래 매해 순이익 1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진정한 나눔명문기업이다. 글강보라 사진경동제약(주), 사랑의열매



경동제약은 나눔명문기업 300호 가입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 코로나19로 기업 역시 경영난을 겪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을 이어간 경동제약의 류기성 대표는 기부의 원동력으로 의지와 책임감을 꼽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기에篤심 있는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꾸준한 기부는 나눔명문기업 300호 기업으로 빛을 발했다. 지난해 ‘KF94 그날엔 마스크’ 10만 장을 포함한 4억 원을 전달하며 고액 기업 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것이다. 나눔명문기업 출범 3년 만에 300호 기업 탄생이라는 기념비적 기록을 세우며 사회 공헌 활동에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경동제약은 사랑의열매와 2004년부터 인연을 맺고, 매년 꾸준한 기부를 해오면서 2019년 강원 지역 산불 피해,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 2022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특별 모금 동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이번 나눔명문기업 기부를 포함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지금까지 총 42억여 원에 달한다.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처럼 이웃의 아픔 치유에도 적극 나서며 사회 각지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인재양성 베이스캠프, 송천재단

☞ 경동제약의 창업주 류덕희 명예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는 신념으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섰다. 1976년 경동제약을 창립한 이후 46년간 회사를 이끌며 모범적 기업 경영으로 제약 산업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류덕희 명예회장은 우수한 의약품 개발에 앞장서며 수입 대체와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힘을 쏟아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는 등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특히 류덕희 명예회장은 후학 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1년 12월, 개인 사재를 출연해 재단법인 송천재단을 설립했다. 송천재단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를 지원하며 인재 양성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 경동제약 본사 강당에서 제4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생 17명을 포함해 중·고등학생 등 총 84명의 장학생에게 1억 6,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송천재단이 2022년 12월까지 지원한 장학생은 총 3,424명이며, 지원 단체는 72곳에 이른다. 누적 장학금 및 학술 연구비 지급 총액은 약 86억 원으로 인재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뜻이 있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송천재단의 정신은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선순환의 물꼬를 튼 모범 활동이다.

1 뜻이 있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송천재단의 장학금
수여식

2 경동제약 봉사 동호회
경동더함은 ‘더불어
함께’라는 뜻으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경동더함

경동제약만의 특별한 나눔 경영은 임직원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선행에도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2013년 6월에 발족한 경동제약 사내 봉사 동호회 '경동더함'은 더불어 함께라는 뜻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조직이다. 매월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관악구와 공장이 위치한 화성·창원·대전·광주시 등에서 복지시설 방문 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참여, 기부금 전달 등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불우 이웃과 사회 소외 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 경영진도 이런 의지에 동참하고자 2022년 9월부터 경동더함을 사내 봉사 동호회에서 회사의 공식 사회 공헌 활동으로 전환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넓은 범위의 봉사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작년 9월 창립 47주년을 맞아 진행된 임직원 걸음 기부 친환경 캠페인 '함께 걷는 그날엔!'을 통해 친환경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접목했다. 해당 캠페인은 모바일 사회 공헌 플랫폼 빅워크 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창립 기념일인 9월 9일을 기념한 9,900만 보를 목표로 의미 있는 도네이션 이벤트를 시작했다. '함께 걷는 그날엔!'에 참여한 임직원은 모두 456명으로,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걸음을 보태 105%의 초과 달성을 이뤘다. 창립 기념 이벤트로 조성한 5,000만 원의 기부금은 서울그린트러스트의 '녹색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록 키트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 계층의 코로나 블루를 완화하기 위해 가드닝 체험이 가능하도록 식물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 의미까지 더한 완전한 사회 공헌 활동이 되었다.



3



4

1 연말맞이 김장김치 봉사에 나선 경동제약 임직원 모습

2 창립 47주년 기념 '함께 걷는 그날엔!' 걸음 기부 이벤트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드림하우스, 꿈의 공간에서 더 큰 꿈을 그린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꿈을 꾸며 희망찬 내일을 그린다. 문제는 위기 청소년, 장애인,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경동제약은 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으로 부천시모퉁이청소년쉼터에서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쉼터인 '꿈지락 공방'이라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거주 공간인 쉼터 외에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생기면서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서툴렀던 아이들은 꿈지락 공방에서 직접 만든 물품을 플라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으며, 자치운영회의를 진행하면서 공방 운영에 주도적 자



2

3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경동더함 단원들의 모습
4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RESTART' 행사로 이들의 내일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동제약 '그날엔' 전속 모델인 가수 아이유도 함께하며 힐링 라이브를 선보였다.

세로 참여하며 변화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교육을 통해 자립 생활의 희망을 키워가는 위캔(WE CAN)센터에도 재정의 손길이 필요했다. 쿠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이곳은 완제품의 유통기한 마킹 장비가 부족해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경동제약의 지원을 통해 마킹 장비를 보강하며, 중증장애인의 꿈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 경동제약은 시설 지원 외에도 2017년 2월부터 위캔과 장애인 연계 고용 협약을 체결하며 위캔이 생산하는 쿠키 세트를 월 600개(연간 7,200만 원 상당)씩 구매해 홍보용으로 활용하며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경동제약의 사회 공헌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을 향한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과 근로 빈곤 여성 가정을 위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며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 1년 차 청년을 돕는 '자립후' 프로젝트로 자립 준비 청년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밀린 월세, 공과금, 자립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긴급 사용된다.

또한 생활고로 비판하며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여성 가장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근로 빈곤 여성 가장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도 지원 중이다. 퇴거·질병 등 긴박한 위험 상황에 상시 지원하며, 매월 선정된 가정에 최대 4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여성 가정의 어려움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엄마DOO! 엄마두 할 수 있어'라는 슬로건으로 야구장을 찾은 관중과 함께 타투 스티커 인증샷 이벤트 '그날엔! 엄마DOO!'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동제약의 사회 공헌은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 '누구도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목격한 울림을 가져다준다. 만병통치약 같은 경동제약의 사회 공헌이 이웃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란다. 🍀

사랑의열매 X 카카오메이커스

두 번째 기부 주인공도

역시 '슈스' 춘식이 (슈퍼스타)

사랑의열매와 카카오메이커스의 두 번째 캐릭터 컬래버레이션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소비자 참여형 배지 투표를 시작으로 판매 수익금 전액으로 쌀을 구입해 조손 가정에 지원까지, 즐거운 나눔문화를 제시하며, 기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정리해봤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사랑의열매 춘식이 기부 배지

사랑의열매 배지 2관왕 춘식이

2021년 사랑의열매와 카카오메이커스는 '춘식이 X 사랑의열매' 배지를 제작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당시 5,0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한 배지는 6시간 만에 조기 완판을 기록했을 정도. 두 번째 사랑의열매 배지 제작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 참여형 디자인 투표를 실시했다. 6종의 캐릭터 중 소비자의 선택은 역시 춘식이였다. 40%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라이언 (20%)과 조르디(16%)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1월에 출시한 두 번째 춘식이 기부 배지는 주문 시작 64시간 만에 1만 개를 모두 완판해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함께 만드는 즐거운 기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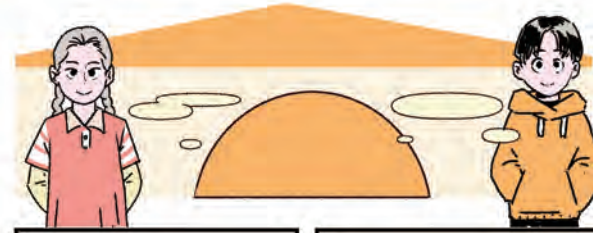
이번 배지 수익금 전액은 조손 가정을 위한 쌀 지원에 사용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총 689가구에 각각 쌀 20kg을 전달했으며, 쌀은 카카오메이커스의 농수산물 판매 증진 프로젝트인 '제가버치'를 통해 구매해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실물 배지로 제작하진 않았지만 디자인 투표로 선보인 캐릭터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꾸미기 이벤트를 통해 한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다른 캐릭터에 투표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2021년부터 일상 속 즐거운 기부 문화를 제시하는 데 함께하고 있는 사랑의열매와 카카오메이커스, 다음에는 또 어떤 나눔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 🍀



배지 판매 수익금 전액은 조손 가정 689가구에 쌀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카카오톡 프로필 꾸미기 이벤트에서 한시적으로 선보인 배지 디자인 6종



노을 공부방 - 제1화 -

학교가 끝났지만 부모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공부방에 모였다.

막 초등학생이 된 도연이는 최근에 공부방에 다니게 되었는데,

도연이의 엄마 미연씨가 최근에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된 회사에 눈치 보일까 너무 일찍 퇴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연이는 매번 공부방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딩동!

어? 엄마?!

...

...

엄마 10분만 있으면 혜정도 엄마 온대.

10분만 책 더 읽어도 돼?

그래.

어휴~ 늦어 죄송해요.

도연아 내일 보자!

엄마 오늘 일찍 끝났지롱!

오늘 저녁은 카레다!

오예! 나 오늘 꿀지 아니네~

엄마나 카레에 우동!

좋아.

아이가 언제 이렇게 다 큰 걸까?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집니다

전국을 덮친 매서운 한파도 누그러지고 어느새 봄을 기다리는 요즘이다. 하지만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의 마음에는 아직 봄은 먼 듯하다. 불안한 미래와 힘든 현재 그 사이에서 홀로 버티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열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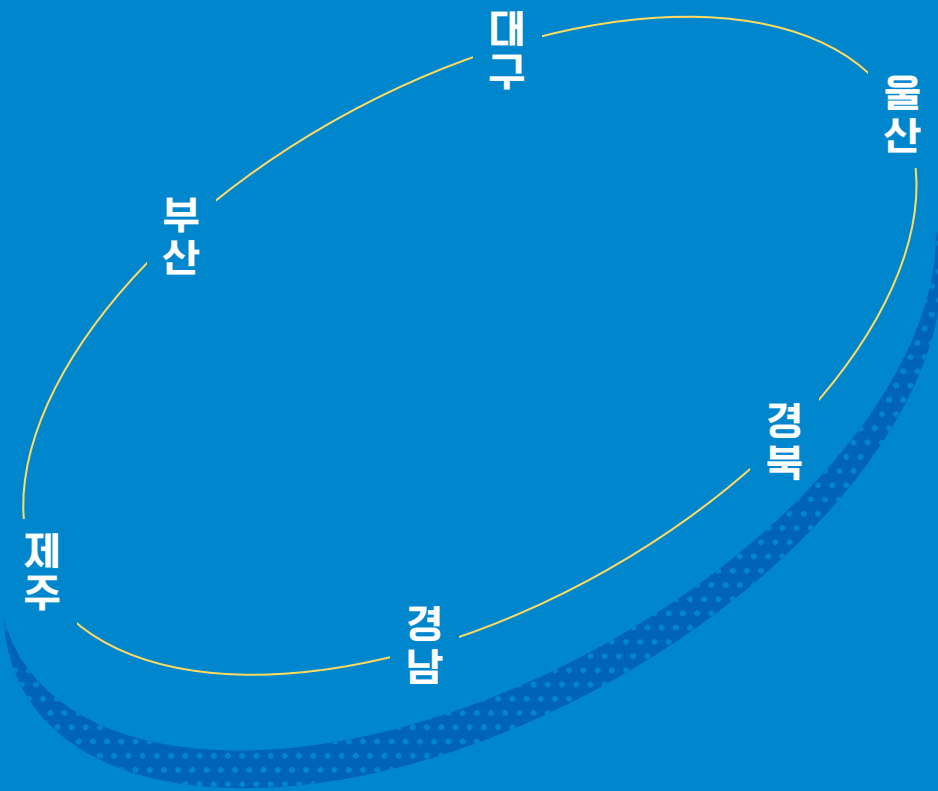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2월



기부는 함께 할수록 더 좋은 것 이웃을 보듬는 부산의 나눔리더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 부산은 시민들의 온정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 가슴 따뜻한 날들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의미 있는 나눔에 앞장서며
진정한 '나눔리더'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나눔리더에 가입한 형 오성택, 오은택 남구청장, 아들 오범록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함께 할수록 좋은 것이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나눔리더 가입을 시작으로 우리 남구에 착한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오은택 남구청장

부산 최초 3代 가족 나눔리더 가입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남구청에서 3대(代)가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했다. 이날 주인공은 오은택 남구청장과 그의 가족으로 아버지 오재덕, 형 오성택, 아들 오범록까지 총 4명이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평소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앞장서온 오은택 남구청장이 가족들에게 나눔을 권유하며 나눔리더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오은택 남구청장은 민선 8기 부산 지역 기초 단체장 중 첫 번째 나눔리더가 되었다. 또한 부산 최초로 3대가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나부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김진홍 동구청장이 부산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나부터 사회에 환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해왔다”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부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가입식에 함께한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은 “김진홍 구청장님의 나눔이 기부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 김진홍 동구청장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과 김진홍 동구청장(오른쪽)

(주)카페봄봄 이승은 대표이사 “대구의 나눔온도를 높일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랑의온도탑은 희망나눔캠페인의 상징이자 지역사회 내 온정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그래서 100도 달성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면, 평소 기부에 뜻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12월 20일, (주)카페봄봄 이승은 대표도 대구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를 높이기 위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클이선희 사진대구 사랑의열매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과 (주)카페봄봄 이승은 대표이사(오른쪽)

대구는 카페봄봄의 성공 원동력

(주)카페봄봄은 2012년 대구의 한 대학가에서 작은 카페로 시작했다. 상위 1% 스페셜티가 함유된 블렌딩 원두를 사용해 깊은 풍미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차근차근 성장해왔다. 현재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480개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로 자리 잡았다. (주)카페봄봄 이승은 대표는 대구에서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지역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이번 나눔온도 100도 달성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

아너 213호로 새로운 시작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위치한 (주)카페봄봄 본사에서 이승은 대표의 아너 가입식을 진행했다. 카페봄봄 임직원,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 및 관계자의 축하 속에서 이 대표는 대구 213호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가입식에서 이 대표는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를 올리는 데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의 나눔이 취약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를 올리는 데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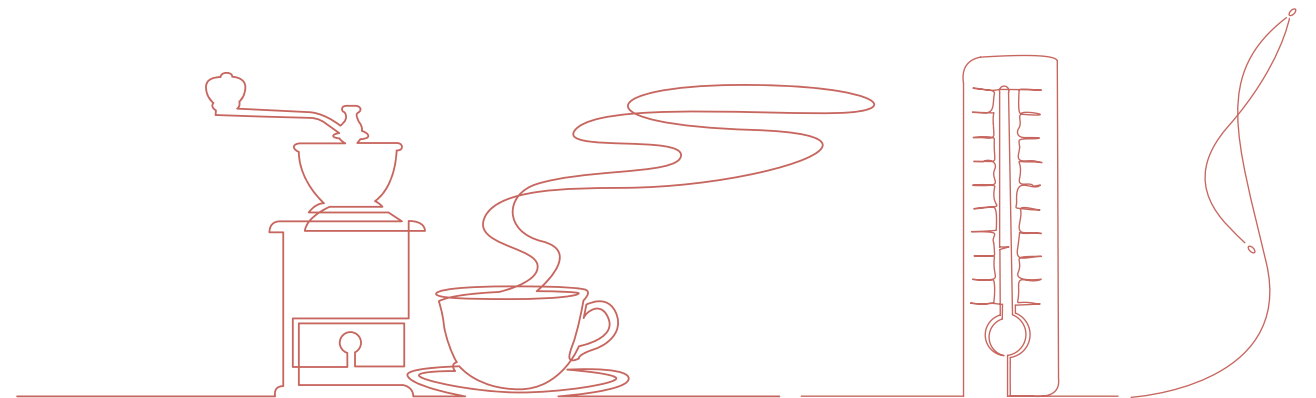
저의 나눔이 취약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카페봄봄 이승은 대표이사

—(주)카페봄봄 이승은 대표이사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

이승은 대표의 나눔 실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3~4월 대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매일 200잔의 음료를 선별진료소와 지역 병원에 기부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다. 2021년에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지역 의료진을 위해 커피 4,000잔을 기부했다. 2022년에는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대구 중구에 2,56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주)카페봄봄만의 ‘스페셜’한 나눔을 이어가는 중이다. ❀



대륙전기(주) 황선환 대표 기부로 지키는 유년 시절의 다짐

대륙전기(주) 황선환 대표는 직원들이 허를 내두를 정도로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 수돗물 한 방울, 종이 한 장까지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이렇게 살뜰하게 아낀 돈은 그의 주머니가 아닌 이웃에게 들어간다. 직원들과 함께 모은 기부금이니 나누는 기쁨도 함께 느껴야 한다는 황 대표를 만났다.

글 이선희 사진 울주군청



(왼쪽부터) 대륙전기(주) 황선환 대표, 이순걸 울주군수,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

맨손으로 일군 오늘날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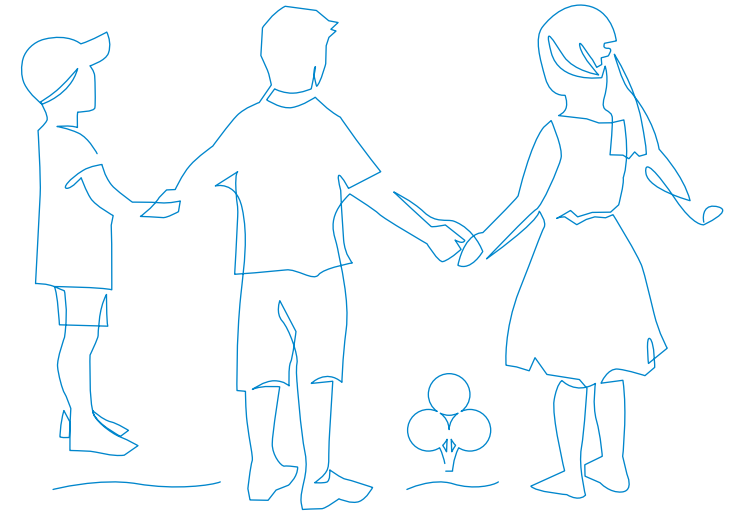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대륙전기(주)는 1985년 9월 건물 내선 전기공사로 시작해 현재는 아파트 내선, 배전, 송전, 플랜트 등 여러 방면의 전기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지역 내 실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모든 건 황선환 대표가 노력으로 일군 성공이다. 60여년 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가정 형편상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낮에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밤에는 기술 서적을 독학하는 수험생으로 성실하게 지내며 마침내 전기 설비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기반으로 작은 전기공사 회사를 차렸다. 대륙전기(주)의 시작이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륙전기를 찾는 거래처가 늘어났고, 그렇게 규모를 키워왔다.

매년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

황선환 대표는 어린 시절 '전 국민이 나한테 1원씩만 주면 힘들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어려운 현실 앞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던 그때 그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주경야독을 하던 청년 시절에도 언젠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희망을 선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의지를 되새겼다. 그리고 그 다짐을 매년 기부하는 것으로 지키고 있다.

함께 나누면 행복은 두 배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범서읍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고자 울산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또 한 번 나눔을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근심과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륙전기(주) 황선환 대표

실천했다. 그는 특히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지금껏 받은 도움을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기업 명의로 전한다. 직원들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회사에선 절약 정신을 강조하고, 그렇게 모은 돈은 누군가를 돕는 기부금이 된다. 황선환 대표는 “나누면 보람과 행복이 배가된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

까까나라와 함께하는 착한소비 과자 먹고 나눔도 하는 기부 과자 박스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경북 사랑의열매와 까까나라가 함께 만든 '기부 과자 박스'는 달콤한 맛과 나눔의 기쁨이라는 두 가지 즐거움을 선물한다.

글 길현정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착한소비 업무 협약식에서 (주)베스트(까까나라) 김기형 이사(왼쪽)와 경북 사랑의열매 정동의 사무처장

슬기로운 간식 생활

다양한 브랜드의 인기 과자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까까나라가 경북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업무 협약을 맺고 이웃 돕기에 나섰다. 지난 2022년 11월 25일 까까나라를 운영하는 (주)베스트의 김기형 이사와 경북 사랑의열매 정동의 사무처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협약에 따라 까까나라는 경북 사랑의열매와 연계한 '기부 과자 박스'를 제작해 판매를 시작했다. 기부 과자 박스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1,000원씩 적립해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목표 모금액은 1,000만 원으로, 1만 박스 이상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



(주)베스트(까까나라)와 경북 사랑의열매가 업무 협약을 맺어 탄생한 기부 과자 박스

고객과 함께 하는 나눔

기부 과자 박스는 열매둥이가 그려진 전용 패키지를 사용하며, 약 16종의 인기 과자와 함께 사랑의열매 엽서 및 배지로 구성된 제품이다. 구매자의 기부 참여를 상기시키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그간 조용히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등에 과자를 기부해오던 까까나라는 최근 들어 고객과 함께 하는 나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독도의 날을 기념한 '독도 과자 박스' 등 다양한 나눔 컬래버레이션으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고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착한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이 사랑의열매 기부 과자 박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

사랑의열매 기부 과자 박스로 '더' 착한소비하세요



- 기간 2023년 11월 20일까지
- 참여방법 G마켓과 까까나라 홈페이지(www.ggaganara.com)에서 기부 과자 박스(3만 원)를 구입, 박스당 1,000원이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부된다.

18년째 기부를 이어온 고마운 당신들께 전하는 마음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사랑의열매는 18년간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온 한국GM 임직원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GM 창원 공장에서 기부자 예우 행사를 진행한 것. 받는 이도, 주는 이도 행복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지난해 12월 27일 GM 창원 공장에서 진행한 기부자 예우 행사

지역사회 구석구석 지속적 지원

한국GM과 직원은 자발적인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GM한마음재단코리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하는 매칭 기부 프로그램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GM 창원 공장이 위치한 경남 지역에서도 경남 사랑의열매와 함께 18년째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창원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 공모형 지정 기탁 사업으로 진행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그뿐 아니라 지원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



경남 사랑의열매가 준비한 커피차 옆에서 커피를 기다리는 GM 창원 공장 임직원들



커피 500잔과 선물은 행사 종료 전 모두 소진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깜짝 이벤트로 즐거운 하루

경남 사랑의열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GM 창원 공장에서 기부자 예우 행사를 개최했다. 가급적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 열매방식 등 사랑의열매 굿즈를 경품으로 한 선물 증정 뽑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장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임직원은 현장에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경남 사랑의열매의 노고에 따뜻하게 화답했다. GM 창원 공장 임직원은 “우리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성금이 잘 전달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사랑의열매가 준비한 커피 500잔과 선물은 전량 소진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지역사회 내 구석구석 건강과 안녕을 살피는 제주수흉부외과

제주수흉부외과는 2018년 8월 개원한 이래, 지역사회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챙기고 있다.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빛나는 인술과 진정한 의술을 펼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전달판에 직원 이름을 적어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제주수흉부외과

꾸준히 지역 사랑 실천

제주수흉부외과는 하지정맥류 진료에 집중하는 흉부외과 클리닉 의원으로 신뢰받는 병원, 연구하는 병원,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병원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와 관리를 하고, 끊임없는 임상 및 학술 연구와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2020년 5월부터 제주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매달 정기 기부는 물론, 매년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다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가치

지난 2021년 나눔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주 사랑의열매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표창을 받았다. 당시 제주수흉부외과 이길수 원장은 “함께 마음을 모아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공을 직원에게 돌렸다. 이처럼 특별히 직원에게 감사를 표한 이유가 있다. 직원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지원 대상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기부금 전달식에 사용하는 전달판에 직원 이름을 적는 등 다 함께 참여하는 나눔을 중요하게 여긴다. 덕분에 직원들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즐겁다는 반응이다. 이런 나눔문화가 있어 제주수흉부외과의 나눔 역시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확신이 든다. ♡

“물질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작이 많아야 불을 피울 수 있듯이 많은 분이 마음에 열매를 품고 나눔에 동참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제주수흉부외과 직원 일동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036호(경북 148호)



서진동 투폴팜(한우 사육 농장) 대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열심히 생활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기억을 떠올리며 아내에 가입했습니다."

전국 3055호(제주 135호)



고창후 변호사고창후법률사무소 변호사

"나눔은 제가 받은 과분한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전국 3056호(인천 165호)



김미숙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전국 3057호(인천 166호)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사랑하는 두 딸 지안, 자유에게 좋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 제가 선택한 지름길은 바로 나눔입니다."

전국 3058호(인천 167호)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동국성신(주) 회장

"베풀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3059호(인천 168호)



정우창 크로바주유소 대표

"작은 사랑으로 나눔의 불씨를 밝힙니다."

전국 3060호(인천 169호)



익명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3061호(인천 170호)



익명

"나눔수록 커지는 사랑에 더욱 행복합니다."

전국 3062호(강원 98호)



승미희 (주)현대메디텍 대표

"기업인으로 나눔명문기업과 개인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전국 3063호(경기 300호)



박현경 KLPGA 정회원 프로 골퍼

"추운 겨울을 지나 봄에 싹이 나듯이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저의 작은 나눔이 따뜻한 행복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3064호(강원 99호)



최승열 강릉철강(주) 대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저의 기부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066호(충남 116호)



이일연 아이엘테크 대표

"나눔으로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3067호(경북 149호)



이용철 램프랜치와 원장

"저의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072호(서울 370호)



이길자

"나눔이란,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듯 합니다."

전국 3076호(부산 305호)



류향석 대연류피부와 원장

"나눔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전국 3077호(부산 306호)



허황기

"나눔 속에서 행복과 사랑의 느낌을 가지도록 모두 노력합니다."

전국 3078호(부산 307호)



정선훈 (사)100세누리교육문화원 대표

"나눔은 기쁨을 얻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전국 3079호(부산 308호)



박숙희

"나눔은 마음으로 기부하고 나면 즐겁고 바라던 일을 성취한 것처럼 스스로 흐뭇해집니다."

전국 3080호(부산 309호)



허손호진

"평소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 그 뜻을 기리기 위함이니 기뻐할 것으로 믿습니다." - 아버지부산8호 손기윤 아너

전국 3081호(부산 310호)



김준모 남포속바른내과 대표원장

"나눔의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

전국 3086호(경북 150호)



허김태호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결혼하는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대로 효도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옆도 돌아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전국 3087호(경북 151호)



김국석 (주)한진산업개발 대표이사

전국 3090호(대전 104호)



권형성 한사랑의원(유성점) 원장

"나눔은 공감이자 나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전국 3092호(부산 311호)



이명자

"나눔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전국 3099호(대구 214호)



전정승 대경안전컨설팅(주)/(주)자우버 대표이사

"형편이 좋아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 김재문 (주)대한개발/웨이크힐 회장,
조흥래 혁지종합건설(주)/주식회사 한웅건설 대표이사,
황성환 갈비1987 대표, 강병선 제빵소담 대표, 신윤영 평산개발 대표
경북 김인근 성심출판사 대표, 권태인 영한산업(주) 前 회장

중앙회

2023년 신청 사업 지원금 21억 원 배분



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신청 사업 '전국사업-모두의 열매'를 실시한다. 지난 1월 11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아름다운세상 등 신청 사업에 선정된 9개 기관 관계자들과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전국 사업-모두의 열매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교육·기후·인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유 주제 신청 사업이다. 사랑의열매는 선정 기관 9곳에 최대 2년간 총 21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초로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진행한다. 사업 대상 지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

도에 걸쳐 있어 개별 지역 단위로 시행하던 기존 사업보다 많은 대상자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한층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인식 사무총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복지 현장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가정에 135억 원 규모의 설맞이 명절 지원 실시

사랑의열매가 설 명절을 맞아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지회를 통해 약 135억 원의 명절 지원금을 배분했다. 사랑의열매는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걱정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유례없는 한파와 급격한 에너지요금 상승, 경제 불황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지난해 지원한 130억 원보다 5억 원을 증액해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정을 포함해 쪽방 거주민·노숙인·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조손 가정 등 총 18만 9,000여 명이다. 생계비와 난방비로 사용할 현금과 각종 생필품·명절 음식·지역 상품권 등을 전국 지자체와 2,359개의 배부 협력 기관을 통해 지원했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지난 1월 31일 62일간의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마무리했으며,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해 사랑의은도탑은 100도를 넘었다.

서울

희망2023 학교모금캠페인 진행



서울 사랑의열매가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위한 희망2023 학교모금캠페인을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초·중·고 1,320개교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율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1년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는 신림초 문지원 교사는 "나눔 참여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의정성을 담은 기부금 전달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석용찬)가 지난 12월에 열린 '2022 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에서 1억 157만 5천 원을 전달했다. 협회 회원사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성금은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쓸 예정이다. 5회째를 맞이한 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중소기업계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부산

저소득 가정 및 쪽방 거주민에 13억 원 지원



부산 사랑의열매가 이웃 돕기 성금 13억 원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성금은 설 명절 특별 생계비 지원에 6억 원, 난방비 지원에 7억 원을 사용했다. 부산시 16개 구·군청 및 동구 쪽방상담소와 부산진구쪽방상담소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1만 2,000세대에 설 명절 특별 생계비 5만 원씩, 7,000세대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했다.

부산 W0아너클럽, 설 명절맞이 미니 차례상 전달



부산 W0아너클럽(회장 이정화)이 지난 1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미니 차례상 봉사 활동 및 전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그동안 물품을 구매해 전달만 해왔으나, 3년 만에 봉사 활동을 재개했다. 부산 여성 아너 회원 10명이 직접 만든 미니 차례상 300개는 서구, 동구, 해운대구에 위치한 복지관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대구

천주교대구대교구청, 성금 1억 원 큰나눔



천주교대구대교구청(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이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담 수은주를 높였다. 천주교대구대교구청은 매년 전국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조환길 대주교는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힘들고 지친 이웃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다스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스엘 서봉재단, 이웃사랑성금 10억원 쾌척



에스엘 서봉재단이 성금 10억 원을 쾌척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에스엘 서봉재단은 취약 계층이 복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에스엘 서봉재단은 “이번 성금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청년의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

광주 사랑의열매에 온정의손길 잇따라



광주 사랑의열매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평의료재단(이사장 김수영)이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3,500만 원에 김수영 이사장의 개인 기부금 2,000만 원을 더해 총 5,500만 원을 기탁했다. 또 무궁화복지월드 빛고을봉사단(봉사단장 윤정)이 1,000만 원, 쌍교숯불갈비(대표 김창희)가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하나되는건설인의모임, 사랑의연탄나눔



하나 되는 건설인의 모임(이하 하건회)이 지난 1월 16일 광주시 동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쳐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배달했다. 하건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년 해오던 봉사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계묘년을 맞이해 뜻깊은 봉사 활동을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장, 인천 167호 아너 가입



동국성신(주) 회장인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장이 인천 사랑의열매 167호 아너로 가입했다. 새로운 도전 정신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회봉사 활동에도 열정적인 강 회장은 이번 희망나눔캠페인을 맞이해 가입을 결심했다. 성금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장학금 지원 및 인재 육성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3년 신청 사업 배분금 전달식 개최



인천 사랑의열매가 2023년 신청 사업에 32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4억 6,402만 9,000원을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1년으로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위기 가정, 다문화 가정, 여성 등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시행한다.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안동거’ 사업을 운영한다.

대전

설명절 지원금 1억 5,000만 원 배분



대전 사랑의열매가 지난 1월 17일 대전시청에서 2023년 설명절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총 1억 5,000만 원의 지원금 중 1억 3,500만 원은 관내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 가정 3,366세대에 지원했으며, 1,500만 원은 쪽방 거주민 및 다문화 가정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설명절 사업비로 지원했다.

한사랑의원 유성점 권혁성 원장, 2023년 대전 첫 아너



한사랑의원 유성점 권혁성 원장이 대전 사랑의열매 104호 아너로 가입하면서 2023년 대전 지역 첫 아너 회원이 탄생했다. 대전 81호 아너인 유엔약품 이상열 대표의 추천으로 아너에 가입한 권혁성 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결심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

울산 사랑의열매,
3인의 신규아너탄생



2022년 12월에 열린 울산 아너 소사이터티 클럽 송년의 밤 행사에서 신규 아너 3명이 탄생했다. 2년 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울산 아너 소사이터티 클럽 박환규 회장 및 회원 40여 명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싱글벙글 꽃집 임미화 대표와 유진약국 이재철 대표, 건진산업(주) 박준연 대표가 울산 신규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JCN특별모금생방송
<나눔으로 하나되는 울산> 진행



2022년 12월 7일 울산 사랑의열매가 JCN울산중앙방송과 연말연시 이웃 돕기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다. 7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이어진 생방송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시의회회장 등 270여 명이 참여해 기부를 실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나눔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파주시, 희망2023나눔캠페인
특별모금생방송 실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파주시 희망2023나눔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 생방송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주최하고 (주)딜라이브경기 케이블TV와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기관 및 단체,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모금에 동참했다.

쇼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선수,
나눔리더 가입



쇼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선수가 고양시 관내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1,000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박윤기 선수는 "이번 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꼈다"며 "많은 사람이 함께 기부에 참여해 사랑을 나누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경기

사회복지시설 27개소에
차량 지원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2년 12월 14일 차량 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현장에 차량을 지원해 이용자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이동 편리성을 높이고, 복지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27개 시설 및 기관을 선정하고, 3억 3,000여 만 원 상당의 경차 27대를 전달했다.

박현경 선수와 팬클럽,
아름다운 나눔 실천



프로 골퍼 박현경 선수가 경기 300호 아너로 가입하고, 팬클럽 '큐티풀현경'이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며 함께 나눔을 실천했다. 경기도 최초로 진행된 아너와 나눔리더스클럽 동시 가입식에는 박현경 선수와 팬클럽 회원 15명이 참석했다. 박현경 선수는 "나눔에 함께해준 팬클럽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8,360가구에 설명절
지원금 3억 원 전달



강원 사랑의열매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설명절 지원금 3억 원을 배분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설명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난방비나 생계비 등 직접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지자체에서 추천한 저소득 가정 8,360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사랑의동전모이기' 업무협약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 이건실)가 강원 사랑의열매와 '사랑의동전모이기' 공동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했다. 강원도 내 경로당 3,269개소에 저금통을 설치하고, 성금을 모아 강원도 내 노인복지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충북

충북지방번호사회,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



충북지방번호사회(회장 최석진)가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충북지방번호사회 김혜은 제2총무이사는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으로 희망을 잇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은 새생명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KT&G 충북본부,
희망2023나눔캠페인 동참



KT&G충북본부(본부장 이병태)가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8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병태 본부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경로당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KT&G충북본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전북

(유)우진산업사,
완주군에 1억 원 쾌척



건설자재 제조 및 광업 관련 기업 (유)우진산업사(대표 이진일)가 완주군 주민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유)우진산업사는 소양면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소양면 저소득 가정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이번엔 지역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진일 대표의 뜻에 따라 소양면을 포함한 완주군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큰 성금을 기부했다.

송가인공식팬클럽
어게인(AGAIN),성금 전달



가수 송가인의 공식 팬클럽 '어게인(AGAIN)'이 전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128만 9,380원을 전달했다. 팬클럽 회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성금은 팬클럽 회원들이 전북 사랑의열매 저금통에 저축한 돈으로 마련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함께 웃으며 극복해나자”고 소감을 전했다.

충남

충남교육청,
저소득 학생 지원성금 전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성금 4억 5,105만 5,13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사랑의 수호천사', 충남 초·중학생들이 동참한 '사랑 나눔 동전모으기' 등의 캠페인을 통해 마련했다. 성금은 충남 지역 저소득 학생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도내 사회복지 기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KCC글라스,
아산시에 5,000만 원 기부



(주)KCC글라스 아산 공장(공장장 서효준)이 아산시에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주)KCC글라스 아산 공장이 2018년부터 6년간 아산시에 기부한 금액은 총 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서효준 공장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남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성금 130만 원 기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회장 송기현)가 성금 13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는 지금까지 총 6,600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송기현 회장은 “울해도 주변 이웃을 살피고 나눔으로 온기를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년전남지역사회복지현장과의
간담회 개최



전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1월 11일 2023년 전남 지역 사회복지현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 지역 사회복지 기관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분 사업 안내 및 신규 기획 사업 주제 제안, 복지 분야별 현안 공유 시간 등을 가졌다.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국 사무처장은 “현장과 적극 협력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따뜻한 겨울나기연탄·난방비지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가 도내 저소득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9,000장과 난방비 8,000만 원을 기탁했다. 연탄은 300장씩 총 300가구, 난방비는 15만 원씩 총 546가구에 전달했다. 이재혁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주시에 이웃돕기성금 기탁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황주호)가 경주역 광장에 설치한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경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22년 9월에도 태풍 피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꾸준한 기부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주호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소주, 사랑의열매에디션 출시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재웅)이 라벨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삽입한 한라산소주 사랑의열매 에디션을 출시했다. 2022년 8월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제주 사랑의열매와 체결한 착한소비 업무 협약에 따라 진행한 것. (주)한라산은 착한 소비 협약 체결과 함께 제주 나눔선도기업 1호로 가입했으며, 2024년까지 매년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제3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성과공유회 개최



제주 사랑의열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2022년 12월 27일 '제3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고도화 워크숍 및 중간 공유회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 멘토링 과정을 함께 한 전문가 멘토단과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홍태용 김해시장, 새해 첫 번째 경남 나눔리더 가입



홍태용 김해시장이 100만 원을 기탁하며 2023년 첫 번째 경남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성금은 경남 지역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홍태용 시장은 “새해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리더에 가입했다”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설명절 맞아 저소득 가정 1만 세대에 5억원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가 설 명절 지원금 5억 원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에 전달했다. 경상남도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도내 저소득 가정 1만 세대에 5만 원씩 지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세종시나눔명문기업 및 모범기업 신년간담회 개최



지난 1월 16일 세종시청에서 2023년 지역사회공헌기업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사랑의열매 박상혁 회장, 세종상공회의소 이두식 회장, 세종 나눔명문기업 9개소와 모범 기업 12곳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범 기업에는 사업 관련 업무 시 이용할 수 있는 세종비즈니스라운지 이용 카드를 증정했다.

세종장영실고등학교, 바자회 성금 기탁



세종장영실고등학교(교장 최재화) 학생들이 성금 126만 7,770원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학생들이 바자회와 축제 기간 물건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2020년 개교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는 '내 삶을 위한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부자·조손 가정 아이들의 결식을 예방하는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한 펀딩을 실시하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사랑의열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게를 소개해주세요



●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게 현판'을 단 곳이 4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쉽게 착한가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사랑의열매>에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착한가게를 널리 알려주세요. 음식점은 물론 헤어 숍, 옷 가게, 서점, 학원 등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한 곳이라면 어디든 대환영입니다. 단골 가게가 알고 보면 착한가게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가게에 걸려 있는 착한가게 현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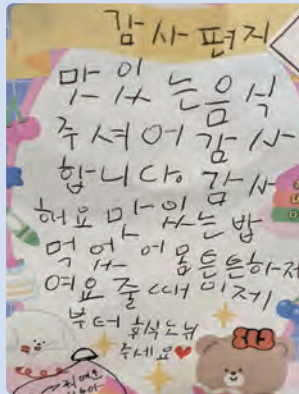
- 1 착한가게 현판과 가게 내부, 또는 상품(음식) 사진을 찍는다.
- 2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매달 20일까지 사랑의열매에 이메일을 보낸다.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착한가게를 소개해준 분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부자·조손 가정 아이돌봄 방학도시락 지원 사업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방학 때는 과자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저체중, 정크 푸드로 인한 소아비만 등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집밥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와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이 함께합니다. 주변 이웃이 직접 도시락을 방문 배달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아이들의 도시락에 사랑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



끼니 걱정 없는 방학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모금 기간
1월 2일~4월 30일

목표 금액
210만 원

모금 사용 예정
부자·조손 가정 도시락 지원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